

구멍난 배 수리하기: 생태문명의 급진적 비전

앤드류 슈왈츠

미국 생태문명원 부대표,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교수

보트는 어떻게 뜰까요? 저는 어린 시절 컬럼비아 강변에서 자랐는데 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배들이 물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것을 보고는 특히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변위와 부력에 대한 과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보트에 물이 너무 많이 차면 결국 수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탄 배에 물이 차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물을 퍼낼 것입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 출연한 잭 스페로우처럼 양동이를 집어 들고 바다로 물을 퍼낼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한 통, 한 통, 최대한 빨리 물을 퍼내도 소용이 없다면요? 여러분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뤄낸 모든 진보에도 불구하고, 배가 떠 있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요?

이 상황은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적인 상황과 유사합니다. 만년설은 녹고 있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으며, 종들은 멸종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급진적인 경제적 불평등, 체계적인 사회적 불공정, 그리고 핵전쟁의 위협으로 인해 더 악화됩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물을 퍼내는 것처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눈을 돌리고, 교육을 늘리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가라앉는 배에서 우리를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충분할 만큼 빨리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쓰레기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할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물을 퍼내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양동이를 제공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보트에 난 구멍을 고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급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성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보트에 물이 차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트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의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고 해결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부족할 것입니다. 질병과 마찬가지로 근본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증상을 단순히 치료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식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왜 다섯 명의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절반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는가? 왜 표토가 침식되고 있는가? 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가? "왜"를 물음으로써 우리는 위기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두 가지가 명백해집니다.

첫째, 세계의 주요 문제들은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환경과 사회라는 두 개의 분리된 위기를 직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와 환경이 복잡하게 얽힌 하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결을 위한 전략은 빈곤 퇴치, 소외된 사람들의 존엄성 회복, 그리고 동시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다."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환경 문제에 집중하는 것 또는 그 반대 방향의 노력을 통해서 위기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젠다 2030(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을 봅시다. 17가지 지속가능발전 목표(빈곤 제로, 기아 제로, 건강 양호, 양질의 교육 등) 각각의 성공을 위해서 목표별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곤과 식량 불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경제적 복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식량 불안과 빈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무한한 성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지구의 장기적 번영보다 단기적 편리함을 우선시하는 가치를 해결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호연관성을 생각하면 종종 더 다루기 쉬워집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의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해결책은 단편적이고 불충분한 채로 남을 것입니다.

둘째, 위기의 본질은 시스템이라는 인식입니다. 복잡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경제, 정치, 교육, 농업 등의 시스템을 변경해야 합니다. 세계의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지배적인 주장이 가지는 가장 큰 실수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프레이밍 하는 것입니다. 유엔의 빈곤 퇴치 목표(SDG #1)를 생각해 봅시다. 2030년까지 "현재 하루에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들의 극심한 빈곤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임금을 1일 1.25달러에서 2달러로 인상하는 것은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착취적 경제체제에 의한 빈곤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실제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뒤에 있는 대부분의 목표와 지표는 이익과 권력을 위해 사람과 자연을 착취하는 문명 시스템에 의한 것입니다. 비슷하게, 저는 최근에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한 멤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각 국가가 재생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데 GDP의 1%만 투자한다면 기후 위기는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일회용 플라스틱 등을 피해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명화된 보트의 구멍을 고치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문에 걸쳐 우리의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생태문명 운동의 특징입니다.

생태문명이란 무엇인가?

생태문명은 인간과 지구의 전반적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인간 공동체의 형태를 말합니다. 문명의 한 형태로서, 그것은 농업, 기술, 교육, 정부, 경제 등 문명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포함합니다. "생태적"이라는 수식어는 우리가 꿈꾸는 문명의 유형, 즉 건강한 공생관계와 자연세계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 공동체를 묘사합니다. 생태문명을 성취하는 것은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잡성과 풍요로움이 증가하는 생태계로부터 올바른 삶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며 사회, 경제, 정치, 생산, 소비, 농업의 시스템이 모든 형태의 삶의 번영을 위해 설계된 비전입니다.

생태문명의 비전은 지구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현재 문명의 핵심 가치, 세계관, 시스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코튼이 말했듯이 사회의 시스템이 "우리 인간은 살아 있는 지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존재이다."라는 깨달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시장 활동이 아닌 살아있는 지구의 전반적인 행복의 측면에서 성공을 측정한다면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바뀔까요? 만약 우리가 "생산성"보다 토양의 건강과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우선시한다면 우리의 농업시스템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해야 하는 현대 사회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문명 운동은 새로운 현실, 즉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변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이론과 실제의 교차점, 지구와 지역, 환경 및 사회, 학문과 행동주의 등이 그 중심적 특징에 속합니다. 생태문명은 지속가능성 이상이지만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환경주의 그 이상이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철학 이상의 것이지만 반드시 세계관의 변화를 수반해야 합니다.

침몰하는 배에 희망을 가지다

우리는 커다란 위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문명화된 보트의 구멍을 고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타이타닉호의 길을 갈 것입니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와 미국 국가기후평가(NCA)의 최근 보고서는 지금 세계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대한 방대한 세부 내용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것들이 여러분을 압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아마도 문명 수준의 변화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절망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그렇게 짧은 시간(IPCC에 따르면 2030년)에 그렇게 거대한 규모(글로벌 시스템)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절망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일 수 있지만, 반대로 근거가 충분한 희망은 인류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잭 스페로우 선장처럼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독특한 시기에 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지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태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계의 중요한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수천 개의 개별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위치에 몇 가지 근본적인 변경(보트의 구멍 수리)만 하면 상당한 지속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 받

으소서'의 메시지, 토마스 베리와 브라이언 스웸의 '생태대', 반다나 시바의 '지구민주주의', 데이비드 코튼의 '위대한 전환', 지구헌장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문명의 새로운 시스템을 외치며 세계인들이 들고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태문명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생태문명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처음으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만큼 유연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찾기 위해 생태문명이라는 최종 목표로부터 거슬러 내려와 일하는 한편으로, 현재의 통찰력이 최종 목표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빈부격차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한한 행성에서 무제한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생태문명을 향한 움직임은 새로운 목적지를 위한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생태문명은 우리가 배에 난 구멍을 고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입니다.